

晋州千里の道

진주라 천리길

이 규남 노래

월드 Cm Fm G7  
전 전 주 주 라 라 천 천 리 리 철 철 길 길 을 을 배 배 어 어 이 이

G7 Cm G7  
왔 님 가 가 남

Cm Fm  
석 장 부 가 에 에 달 의 받 만 일 이 이 나 무 기 소 리 를 를

G7 Cm  
얼 들 쌔 을 안 고 애 애 아 아

G7 Cm Fm Gm  
모 타 향 살 운 이 만 섬 지 면 사 차 를 를

Cm G7 Cm  
애 노 레 할 를 를 모 려 르 분 다 나



1. 晋州千里の道を なぜに来たのか

壇石樓 (チョクソクル) に月影

柱の木をかき抱き

ああ 他郷暮らしの心を

慰労してくれるすべはない

[台詞]

晋州千里の道を なぜに来たのか

水車は巡り巡って 歳月は流れていき

人生は 行ったり来たり

青春も老いてしまった

老いやく青春に 若返る思い出

ああ 手を取り別れたあの人

あの人は行方もしない

2. 晋州千里の道を なぜに来たのか

南江 (ナムガン) の川辺に

寂しく笛の音を聴くとき

ああ 砂を握りしめると

昔の歌を 歌ってみるよ

「樂譜」韓国歌謡全集4 (1980年世光出版社)

P418 を転載した。歌詞は、山根俊郎が翻訳。

[이규남-진주라 천리길/\(영상출연 가수 박재영\)스타 365](#)

※YOUTUBEを聴いてみると「樂譜」において1番

と2番の歌詞の後半部分を取り換えて誤って記されている事が分かり、原曲通りに正しく翻訳した。

(終)